

2011. 6. 20 제265호

특 집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6. 20 제265호 특집

일자리 창출

1. 외식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해 자금 대출 및 업무공간 제공 (뉴욕)
2.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추진 (영국 혈市)
3. 향후 10년간 저탄소경제 구조로 개선해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스코틀랜드)
(토막기사) 해안 풍력발전소 유치로 대규모 녹색일자리 창출 (영국 혈市)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 (영국 랭커스터市)
5. ‘노인 간병’을 유망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팀 운영 (베를린)
6.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육성 지원사업 시행 (도쿄)
7. 고령자 대상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 (도쿄)
8. 일자리 창출계획 및 세대별 고용대책 추진 (일본 교토후/교토市)

일 자 리 창 출

1. 외식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해 자금 대출 및 업무 공간 제공 (뉴욕)

- 뉴욕시는 민간과 협력해 도시 차원에서 외식업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특히 주방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고, 업무공간을 제공하며, 소규모 외식업소 및 음식산업 관련 기업과 사업자가 사업과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 대출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약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대출은 주로 외식업 창업, 주방 시설 확보,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외식업 관련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市는 기존에 개선이 필요했던 사업자와 외식업 관련 기업이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이는 이민자가 많은 뉴욕에서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관광객이 많은 상황에서 외식업과 음식산업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실제로 市의 식품 및 외식산업 부문은 1990년 대비 2/3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2010년 대비 6% 이상 증가하였고, 지금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市 경제개발공사는 이번 대출프로그램과 함께 선셋 공원에 있는 연방 정부 소유 건물의 업무공간을 식품제조업자에게 임대해줄 계획이라고 발표함. 또한 골드만삭스 도시투자그룹은 기술이 없는 구직자나 이민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www.nytimes.com/2011/06/07/nyregion/city-works-to-revive-food-industry-through-small-businesses.html?_r=1)

2.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추진 (영국 헐市)

- 영국 헐市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청년층을 겨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 헐市는 영국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임. 현재 16~18세 청소년의 11%인 8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실업 상태에 있음. 이는 전국 평균치인 8.5%를 상회하는 수준임.
-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인 헐 대학(University of Hull)은 市와 협력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시설을 훈련장소로 제공함. 예를 들어 헐 대학 물류연구소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의하는 훈련프로그램인 ‘Cat Zero’ 사업을 시행함. 교육생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첨단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에 입학하기보다 취업을 선택한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기사 과정임. 해당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육생들은 다양한 훈련기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직업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돋보임. 지역에 유치한 녹색산업과 물류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함.



【헐 대학에서 실시 중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www.bbc.co.uk/news/uk-england-humber-13118601)

3. 향후 10년간 저탄소경제 구조로 개선해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에서는 시행 중인 ‘탄소 비축사업’을 통해 5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구조가 저탄소경제로 개선되면 더 많은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탄소 비축사업(Scottish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유럽연합 기금을 지원받아 롱아넷, 피터헤드, 헌터스톤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망은 ‘스코틀랜드 기업 연구’에서 제시함. 구체적으로 건설공정이 완료될 2020년까지 4600여 개, 이후 전시·운영과정에서 454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함. 또한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부가가치가 27억 5000만 파운드(약 4조 840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더해 운영기간 내내 연간 5억 3500만 파운드(약 9400억 원)의 고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스코틀랜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향후 10년간 저탄소경제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혁신하게 되면 총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이를 위해 환경산업, 청정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경제구조 개선방안이 도입됨. 스코틀랜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및 청정상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첨단 경제구조로 개혁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풍력·조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2만 6000여 개에 이르고, 탄소 비축과 대안연료 산업에 2만 6000여 명, 환경관리 분야에 8000여 명이 새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해안 풍력발전 사업의 전망이 밝아 이 사업분야에서 총 300억 파운드(약 52조 7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경제구조 개선방안에는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민간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방안 등이 포함됨.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원받은 유럽연합 혁신기금 중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1500만 파운드(약 2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
-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면 2015/2016년경에는 스코틀랜드 경제가 120억 파운드(약 21조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녹색산업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스코틀랜드 저탄소시장 규모는 2007/2008년 현재 85억 파운드(약 14조 9500억 원) 정도임.
 - 정부는 버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 파트너십을 통해 저탄소 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100만 파운드(약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비 도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2%, 2050년까지는 50%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움. 현재 2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의존비율을 202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www.energysavingtrust.org.uk/Resources/Energy-saving-news/Renewable-energy/2/Green-jobs-will-be-created-by-Scottish-Carbon-Capture-and-Storage-projects)

(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2010/11/15/scotland-set-for-60-000-new-green-industry-jobs-claims-holyrood-86908-22719466/)

해안 풍력발전소 유치로 대규모 녹색일자리 창출 (영국 험버)

- 영국 험버는 해안 풍력발전소 유치로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세계적인 엔지니어링회사 지멘스(Siemens)와 ABP(Associated British Ports)사는 공동으로 험버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험버는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함. 험버는 새로 들어설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임.
- 풍력발전소 유치는 지역 경제구조를 녹색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함.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고 험버를 세계적인 녹색산업 첨단기지로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www.bbc.co.uk/news/uk-england-humber-12240113)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 (영국 랭커스터市)

○ 영국 랭커스터 예술 파트너십(Lancaster Arts Partnership)은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랭커스터 예술 파트너십은 지역 내 7개 예술단체가 만든 연대조직으로 자체 연구조사를 통해 공공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분야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의산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높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던 복지와 문화부문 예산을 삭감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랭커스터市도 향후 3년 동안 1억 7900만 파운드(약 3151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데, 문화분야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 랭커스터 예술 파트너십은 이러한 정책기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힘.

·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1파운드(약 1800원)로 예술단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이의 5배가 넘는 5.19파운드(약 9100원)이며, 여기에 문화예술 산업이 가진 연쇄효과를 통해 얻는 일자리 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극장이 새로 생기면 관객들이 이용하는 커피숍, 식당, 소매점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생기는 효과가 연쇄효과이며, 그 결과 지역별 상권이 형성되는 클러스터 효과도 발생함. 실제로 그동안 랭커스터

예술 파트너십이 지원받은 예산을 통해 문화시설 인근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00여 개에 달함.

- 창의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랭커스터에도 ‘스토리 미술관’을 재정비하여 창의산업센터가 만들어짐. 여기에 영화사,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 등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음. 창의산업센터 창립에 따라 전국에 있는 창의기업이 랭커스터로 모이는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창의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됨.



【랭커스터의 듀크극장 전경】

([news.bbc.co.uk/local/lancashire/hi/people_and_places/arts_and_culture/](https://www.bbc.com/news/health-12345678)
[/newsid_9359000/9359042.stm](https://www.bbc.com/news/health-12345678))

5. ‘노인 간병’을 유망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팀 운영 (베를린)

- 베를린市는 ‘노인 간병’을 경쟁력 있는 미래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3월 ‘노인 간병을 좋은 직업으로’란 연구팀을 발족함.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면 노인 간병은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직업분야임. 그러나 노인 간병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조건과 임금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
- 2008년 통계에 따르면 市 소재 양로원과 노인 간병기관에는 약 7만 3000명이 종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수준임. 종사자의 75%는 여성이고, 1/3 이상은 시간제로 고용되었으며 이중 9000명은 월 400유로(약 62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일함. 정규직의 경우에도 48%가 1500유로(약 23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의 72%까지 확대해도 2000유로(약 3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음.
-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2%에 그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업 전체의 직업교육 수료비율인 4.8%보다 훨씬 낮음. 또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래사회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분야지만, 노인 간병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市 통합·노동·사회부는 노조, 연방인력공단, 의료보험 및 간호보험, 노인간병기관연합, 간호학과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발족하고 질 높은 간병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간

병인들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을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

- 현재까지 참여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구상된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회보험 개정을 통한 노인 간병 전문 직업교육 재정 마련, ② 현재의 노인 간병인에 대한 3년 과정 재교육 재원을 연방에 지원 요청, ③ 사회적 차별을 받는 구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④ 노인 간병 직업에 대한 캠페인, ⑤ 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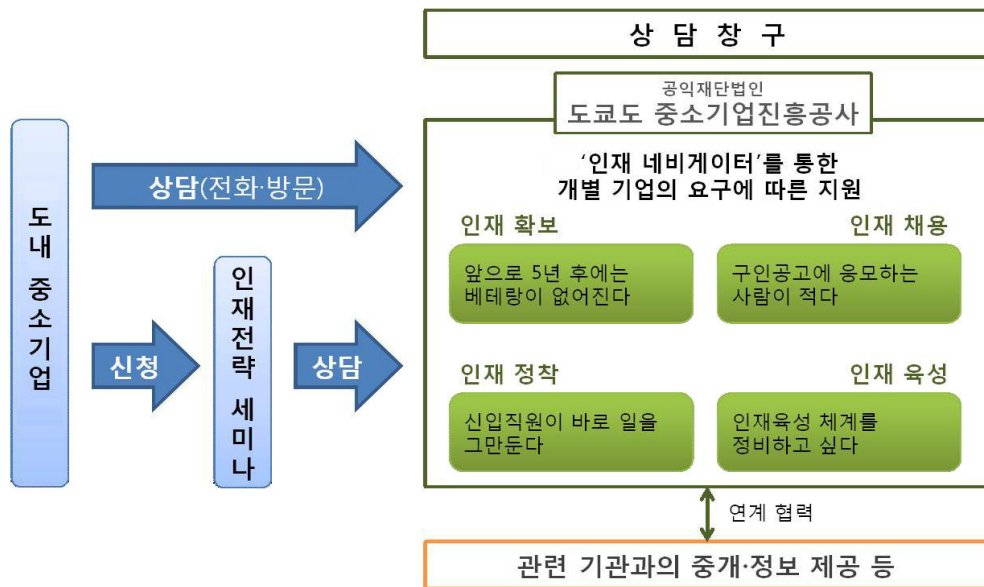
(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04.1705.334032.html)

(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24.1350.337124.html)

6.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육성 지원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 산업노동국과 都 중소기업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경영과제에 따른 인재 확보에서부터 정착, 육성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도쿄都 중소기업 인재 확보·육성 종합지원 사업’을 실시함.
- 都와 중소기업계는 2011년 3월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민간기관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인력채용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함. 현재 기업 경영과 인재 육성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지원실적과 실무경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 전문가가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 조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 都是 이러한 ‘인재 네비게이터’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인재 육성에 대한 상담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전략을 고려한 인재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인재전략 세미나’도 연 4회 개최할 예정임.
- 이 사업은 都의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2011년 실행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임.



【도쿄都 중소기업 인재 확보·육성 종합지원 사업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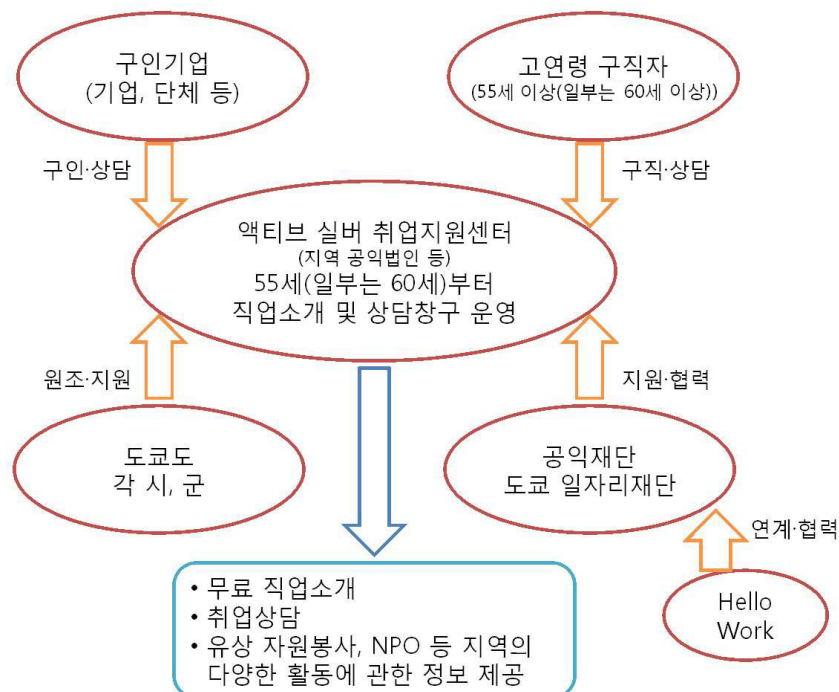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6/20161600.htm)

7. 고령자 대상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 (도쿄)

- 도쿄都 일자리재단에서는 자치구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55세 이상(일부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직

업소개소 상담창구인 ‘액티브 실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함. 구직신청 등록, 취업상담, 직업소개, 구인정보 열람 등의 서비스가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됨. 급여가 지급되는 비영리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짐.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할 경우 구인등록 및 인력 소개가 무료로 이루어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인절차를 밟을 경우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지원금’ 대상이 되어 별도의 지원도 받게 됨.



【액티브 실버 취업지원센터의 개념도】

(www.shigotozaidan.jp/kourei/active/active.html)

8. 일자리 창출계획 및 세대별 고용대책 추진 (일본 교토府/교토市)

○ 일본 교토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 안정 보조금의 활용을 늘리고 적극적인 구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 경력을 파악하여 민간시설 위탁 훈련 등을 실시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임.

- 현재 교토府의 경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직업안내소에 등록된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자 수의 비율은 2007년 1월 1.05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2009년에는 0.53으로 떨어짐.

· 교토府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며, ②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③ 상담을 하러 오는 주민에게는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④ 정년을 연장하거나 64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를 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수료 후 직업훈련과 관계된 일자리를 알선함.

○ 한편 교토市는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의 지역 편중을 없애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대책을 실시함. 고용률이 낮은 지역을 ‘고용촉진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출신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함.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고용대책안을 콘테스트 방식으로 채택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市에서 지원함.

- 특히 市는 고령자의 취업에 힘을 쏟고 있음. 현재 일하고 있는 고령자가 65세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침.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 고용률을 1.8%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고용률 달성 기업이 절반을 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임.

(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2.pdf)

(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3.pdf)